

현대경제연구원이 선정한

휴가철 CEO가 읽어야 할 도서 10+1選

2013. 6.

1. 개요

- 선정 배경

-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최근 주도하고 있는 경제·경영 분야의 트렌드와 인문·사회 분야의 주요 이슈를 감안해
- 하계 휴가철에 CEO가 반드시 읽어야 할 도서 10+1권(경제 경영 7권, 인문 사회 3권, 문학 1권)을 선정

- 선정 기준 :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출간된 경제·경영과 인문·사회, 문학 분야의 도서를 대상으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도서를 선정

-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통찰력을 갖게 하는 도서
-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경제 및 경영 방향 수립에 도움이 되는 도서
- CEO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갖추고 성찰하는 데에 유용한 도서

< 2013년 「휴가철 CEO가 읽어야 할 도서 10+1選」 >

*무순

분야	No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출간월
경제 경영 (7選)	1	글로벌 트렌드 2030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예문	2013.01
	2	에릭슈미트의 새로운 디지털시대	에릭 슈미트, 제러드 코언	알키	2013.04
	3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폴 크루그먼	엘도라도	2013.04
	4	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열린책들	2013.05
	5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홍성태	썸앤파커스	2012.07
	6	최고의 전략은 무엇인가	크리스 주크, 제임스 알렌	청림출판	2013.06
	7	관찰의 힘	얀 칩체이스, 사이먼 슈타인하트	위너스북	2013.06
인문	8	어제까지의 세계	재레드 다이아몬드	김영사	2013.05
사회 (3選)	9	시간의 향기	한병철	문학과지성사	2013.03
	10	도쿄 산책자	강상중	사계절	2013.04
문학 (1選)	+1	소금	박범신	한겨레출판사	2013.04

2. 추천 도서 10+1選 소개

○ 경제·경영 분야 (7選)

『글로벌 트렌드 2030』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저 / 이미숙, 류혜원, 박지니, 이현정 역 / 2013.01 / 예문

미국의 입장에서 국가정보판단을 하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위원회’가 5년만에 내놓은 향후 20년간 세계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자원 등의 거시적 동향과 전망을 담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300회 넘게 언급되는데 그만큼 모든 글로벌 트렌드의 초점은 중국이 되며, 미-중 관계가 새로운 미래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할 것인지’와 ‘미국과 중국 외의 다른 나라들이 경제군사력을 바탕으로 얼마나 세계 속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인 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4가지 대세흐름과 6가지 게임체인저, 이들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낼 미래에 대한 4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더불어 가장 주목할만한 첨단 신기술로 ‘3-D 프린팅 제조업’과 ‘로봇공학’이며 이로 인해 선진국에서 중·저임금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에릭슈미트의 새로운 디지털시대』

에릭 슈미트, 제러드 코언 저 / 이진원 역 / 2013.04 / 알키

이 책에서 우리는 다가올 디지털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스마트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에 각각 맞춘 외교정책과 국내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점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준다. 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로 인한 연결성의 확장으로 시민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힘을 갖게 되었지만, 인터넷 사용시 겪게될 개인 사생활 및 회사 정보의 보안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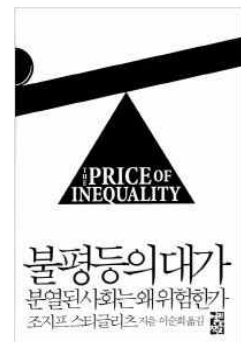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폴 크루그먼 저 / 박세연 역 2013.04 / 엘도라도
-------------------	------------------------------------

국제경제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대공황 이래 최대의 침체를 몰고 온 금융위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책은 경기침체의 원인을 케인지언의 분석을 기초로 현재 위기가 본질적으로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이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 저자는 정부가 양적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기 회복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부양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더불어 각국 정부 및 주류 경제학계에서 우려하는 재정 적자 해소방안까지 함께 제시한다.



『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저 / 이순희 역 2013.05 / 열린책들
-----------	---------------------------------------

결론적으로 이 책은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001년 ‘정보의 비대칭성’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불평등’을 핵심어로 삼아 미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적나라하고 통렬하게 해부한다. 현재 미국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이 어떻게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주며, 불평등이 경제뿐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와 사법체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부의 각종 정책이 불평등의 심화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책들과 차별화된다.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홍성태 저 / 2012.07 / 쌤앤파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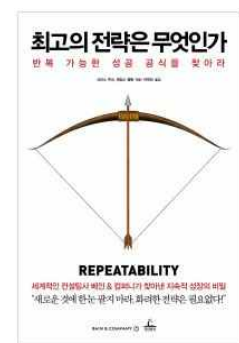
요즈음같은 복잡하고 초경쟁적인 경영환경속에서 이기는 수단
의 하나로서 소비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고 차별적 이미
지를 구축하는 과정인 브랜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브랜딩은 브랜드의 좋은 품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규정하며, 이를 브랜드의
탄생과 체험이라는 두 영역으로 나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브랜드의 비결을 밝힘으로
써 브랜딩을 보다 잘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애플,
업솔루트 보드카, 맥도날드 등 이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례
들은 살아남은 브랜드와 사라진 브랜드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
준다.



『최고의 전략은 무엇인가』

크리스 주크, 제임스 알렌 저 / 이혁진 역
2013.06 / 청림출판

책 겉표지에 쓰여 있는 “새로운 것에 한눈 팔지 마라, 화려한
전략은 필요없다”가 이 책의 핵심 내용을 대변하고 있다.
놀라운 속도로 수익성 높은 초고속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우
량기업의 사례 연구를 통해, 저자는 이들 기업에게 성장 전략
의 날개 역할을 해준 명확하고 반복 가능한 모델이 있음을 발
견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최고의 전략이란 시대가 변할
때마다 등장하는 새로운 전략이 아닌 거창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단순하게 반복되는 성공 공식이다. 단순하면서 반복 가
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성공한 기업, 반면에 복잡성과 적응
력 상실로 인해 실패한 기업의 경영진을 인터뷰하여 불확실성
시대의 성공 공식을 알려주고 있다.



『관찰의 힘』

안 칩체이스, 사이먼 슈타인하트 저 / 야나 마키에이라 역
이주형 감수 / 2013.06 / 위너스북

혁신의 시작은 주변의 평범한 것에서 비롯되는데, 인간 생활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치기 쉽다. 저자는 극히 평범해 지나치기 쉬운 것들 속에 미래의 기회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일상 생활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관찰’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찰을 통해 발견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획기적인 변화를 알려주고,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짚어본다.

사물을 보는 새로운 방법으로 무장하고서 삶의 구석구석을 현명한 의문도 던져가면서 열심히 관찰하게 되면 새로운 모습으로 이해하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 미래 · 인문 · 사회 분야 (3選)

『어제까지의 세계』	재레드 다이아몬드 저 / 강주현 역 / 2013.05 / 김영사
------------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문화인류학 교수로 있는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지난 50년간 문명탐구를 통해 역사의 역동적인 변화와 흐름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세계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과 진실을 낱알이 파헤쳐왔다. 이 책에서 현재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세계’ 구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는 더 발달한 문명에서 찾지 않고 문명적으로 오히려 지금 보다 크게 뒤쳐졌다고 생각하는 과거에서 찾고 있다. 인류가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호모사피엔스가 된 이후 수 만년 동안 자연과 어울려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발전시켜왔다는 사실이 그의 출발점이다. 저자는 과학자답게 직접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오지에서 장시간 원주민들과 어울려 살면서 관찰한 것들을 주로 현재 미국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딜레마와 대비하면서 인류 먼 조상들의 지혜를 부각시키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과거를 미화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 책을 통해 저자가 과거를 무시해온 지금까지의 접근방법을 수정해 과거의 좋은 점을 현대문명의 좋은 점과 새롭게 결합하는 일종의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철학을 해법으로 제시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시간의 향기』	한병철 저 / 김태환 역 / 2013.03 / 문학과지성사
----------	----------------------------------

왜 우리는 늘 시간이 없고 시간에 쫓길까? 왜 시간은 그토록 빨리 지나가는 것일까? 나는 주어진 시간을 요령 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느끼고 있는 이러한 일상적 의문들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담아내고 있다. 저자는 현대사회의 모든 시간이 노동의 인질이 되었음을 포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활동적 삶’에서 ‘사색적 삶’으로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일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을 생성하는 것, 시간에 향기를 되돌려주는 ‘시간 혁명’이라고 강조한다.



『도쿄 산책자』	강상중 저 / 2013.04 / 사계절
----------	-----------------------

강상중은 구마모토 출신의 재일교포로 현재 세이가쿠인대학교 교수로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방인’의 시선으로 도쿄를 산책하면서 느낀 점을 또 다른 ‘이방인’으로 서울을 산책하면서 얻었던 느낌과 곳곳에서 비교하고 있다. 어느 나라든지 수도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나라를 상징한다. 따라서 한 나라 수도의 변화하는 모습을 따라가거나 어느 한 시점에서 다른 나라 수도와의 비교는 그 수도를 품고 있는 더 큰 사회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새로운 혹은 지금의 일본이야기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이 책의 뛰어난 점은 저자가 무거운 이야기로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유혹을 잘 물리치면서 샤넬 긴자점과 신오쿠보 등 한국 사람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상의 공간을 통해 일본이 겪고 있는 변화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지진과 쓰나미, 방사능과 전력난이라는 재난을 겪은 후 도쿄가 예전의 오만한 도쿄에서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따뜻한 도쿄, 사람 온기가 있는 도쿄가 되길 기대하는 속에서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가깝고도 먼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온 ‘경계인’으로서의 소박한 바람 또한 읽을 수 있다.



○ 문학 분야 (1選)

<p>+1 『소금』</p>	<p>박범신 저 / 2013.04 / 한겨레출판사</p>
-----------------------	---------------------------------

이 소설은 ‘청년작가’ 박범신이 데뷔 만 40년이 되는 해에 펴낸 40번째 장편소설이다. 화해가 아니라 가족을 버리고 끝내 ‘가출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이다. 저자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를 꼭 둘로 구분해야 한다면, 하나는 스스로 가출을 꿈꾸는 아버지, 다른 하나는 처자식들이 가출하기를 꿈꾸는 아버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거대한 자본의 세계 속에서 가족들을 위해 ‘불박이 유랑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출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늙어가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과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작가는 말한다. 이 거대한 소비 문명을 가로지르면서, 그 소비를 위한 과실을 ‘야수적인 노동력’으로 따 온 ‘아버지’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부랑하고 있는가. 그들은 지난 반세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아니, 소비의 ‘단맛’을 허겁지겁 쫓아가며 있는 우리 모두, 늙어가는 아버지들의 돌아누운 곁을 등을 한번이라도 웅숭깊게 들여다 본 적이 있는가.

